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이 경 진 최 진 영 최 나 영 김 지 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음악영재들의 요구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음악영재교육기관에서 음악영재교육을 수혜하고 있는 음악영재 103명을 대상으로 음악영재교육과정의 요소 즉, 교육 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그리고 음악영재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했다. 요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음악영재 교육목표 중 ‘자기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항목에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간의 차이가 컸다. 교육내용에서 ‘클래스 피아노’와 ‘부전공실기’, ‘음악 현장체험’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부전공 실기’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교육방법에서 음악영재들은 ‘학습자의 자율적 선택과 흥미를 추구하는 수업’과 ‘현장 수업’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교육평가에서는 ‘학생들 서로에 대한 상호평가’와 ‘그룹별로 협동해서 공동의 작품이나 연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그리고 음악영재들은 ‘실기실/실습실(연습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특히 고등학생들은 실기실뿐 아니라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음악영재교육과정을 개발할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음악영재교육과정, 교육과정 개발, 요구조사

I. 서 론

2013년 10월에 발표된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는 1, 2차 계획 추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면서, 여러 한계 중 하나로 지금까지의 영재교육이 공급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수요자인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발이란 교육에 대한 우리의 생각, 기대, 이미지 등을 한 학생 혹은 학생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김경자, 2000).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 설계

와 작동의 양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통칭하는 용어이고 이론과 실제의 통합을 이루려는 행위이며 교육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문제들의 검토로부터 시작된다(이성호, 2004).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제시된 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와 이론적 문제들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가장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의 요구다.

요구(need)란 현재의 상태나 수준, 바라고 원하는 이상적인 소망상태나 수준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상적인 소망상태는 흔히 목적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목적과 현재 실태, 또는 이상과 실제 간의 차이를 조사·분석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요구조사이다(이성호, 2004). 요구조사는 교육자, 지역사회,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학교의 현재 교육실태의 구멍을 통한 교육성과와 과정의 간격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Berrie, 1976)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요구조사는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목적을 구명하고 목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현재실태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적 요구를 확인하여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요구조사는 교육과정 개발의 체계적 접근에서 강조되었다. 교육과정은 체계적 접근 혹은 비체계적 접근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데, 체계적 접근을 기반이라 하더라도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상황과 절차가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으며, 비체계적인 접근의 경우도 학습상황이 진행되는 한 특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김경자, 2000). 대표적인 체계적 접근의 교육과정 개발은 Tyler를 들 수 있다. Tyler(1949)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이고 이 질문에 답이 되는 교육목표 선정의 원천은 현대사회에 대한 연구와 교과 전문가의 제안, 학습자에 대한 연구라고 했다.

영재교육과정 전문가인 VanTassel-Baska & Stambaugh(2007)는 Tyler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참고하여 계획, 요구사정, 팀 구성과 작업범위, 교육과정 개발 접근, 실험적 실시/예비검사/현장시험, 실행, 평가, 수정이라는 영재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고안하였다. 계획단계는 영재교육과정 개발자가 영재교육과정과 관련된 기본 이슈와 핵심 질문을 조사하는 단계이고, 요구사정은 영재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요구의 영역들을 제시하는 단계로 영재를 위해 적합한 교육과정이 어떤 수준에서 존재하는지와 그 격차는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등의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요구조사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이처럼 요구조사는 일반적인 영재교육과정 개발 절차 뿐 아니라 예술영재교육과정 개발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차별적 교육과정 구성모형을 제안한 정진원(2012)의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의 제일 첫 단계를 진단평가 단계로 설정했는데, 이 단계에도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음악영재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요구조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은 학습자의 요구보다는 주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말 그대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과 혹은 교육전문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교육과정 요소 즉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술영재교육 중 미술과 더불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음악분야의 경우,

음악영재교육에서의 성취기준이나 정형화된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음악영재교육에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김성혜, 이경진, 2015).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최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이경진, 최진영, 최나영, 2014)와 속의 결과를 분석한 연구(김성혜, 이경진, 2015)는 있으나, 학습 대상인 음악영재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음악영재교육의 학습자인 음악영재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음악영재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구성요소인 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분석하고, 학급급(중학생/고등학생)에 따라 요구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에의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악영재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가. 음악영재교육과정의 목표

음악영재교육에 있어서 학생을 어떠한 음악영재로 성장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이는 교육을 통해 음악영재에게 어떠한 능력, 음악영재성을 갖추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의 설정이 곧 음악영재교육의 목적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음악영재성을 규명하고 음악적인 재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음악영재교육과정의 목표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

Haroutounian(2002)은 음악재능의 관점에서 음악영재성에 접근하는 가운데 음악재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음악적성, 음악지능, 연주 기능과 기술, 음악적 창의성을 꼽았다. 음악적성은 소리를 지각하고 차이를 구분해 내며, 음을 기억하고 연상할 수 있는 능력, 학습과 훈련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음악지능은 소리를 통해 음악개념을 이해하고, 음악을 조직하는 원리, 음악적 경험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해의 범위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연주 기능과 기술은 기본 주법이나 테크닉 같이 악기 연주에 필요한 운동·감각 기능, 민첩하고 정확하게 연주하는 기능, 의도한대로 연주해내는 표현 능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음악적 창의성은 즉흥연주 능력, 독창적인 반응·표현 능력, 자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소통하는 능력, 창작 능력을 포함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음악적성과 음악지능의 경우에는 교육에 의해서 학습과 훈련이 가능함을 주장했다(정진원, 2012).

정진원(2008)은 ‘음악을 한다’는 것은 음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재능이 뛰어난 이들을 음악영재라고 보았다. 이러한 음악적 재능에는 음악적성, 음악 지능, 음악 성취, 음악적 창의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후 정진원(2011)은 Hallam의 음악재능 결정 요인에 기반하여 청각적 변별력, 음악지능, 연주능력, 음악적 창의성으로 음악재능의 결정 요인을 구분하였다. 청각적 변별력은 여러 음악의 요소를 음을 통해 정확하게 감지하고 변별하는 능력, 들었던 음을 정확히 기억해내고 재현할 수 있는 능력, 내청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음악지능에는 독보력, 음악 개념과 형식에 대한 이해, 음 관계에 대한 이해, 암보능력, 작곡·즉흥연주를 통한 구성 능력, 시·청각적 분석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연주능력은 악기의 기본 주법과 테크닉, 정확하고 민첩하게 연주하는 능력, 악기에 대한 조절 능력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음악적 창의성에는 표현한 바에 따라 소리를 조절하고 구성하는 능력,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정서를 음악적으로 구성·표현하는 능력, 음악의 논리성 안에서 독창적으로 표현을 구성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한편, 전통적인 입장과 더불어 음악영재가 갖추어야 하는 재능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중지능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Gardner(1983)는 청각적 민감성, 청각적 변별력으로 음악재능을 파악했던 기존의 관점을 넘어 인간의 인지능력, 고등사고능력과 음악재능을 연결시키기도 했다(김성혜, 2012). 국내에서는 영재교육진흥계획 발표 이후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예술영재교육과정의 방향이 제안되어 왔다. 김춘미 외(2006)는 예술영재교육에 있어서 예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능력을 개발시키는 교육적 측면, 건강한 자아 형성을 토대로 공동체 및 사회와 함께하며 책임의식을 갖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세계 유수의 예술영재교육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음악적 능력 함양과 잠재력 개발과는 별도로,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며 사회 참여와 헌신, 기여를 매우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이경진, 최진영, 최나영, 2013).

또한 음악영재성에 대하여 음악영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최근의 접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능력’으로, 최근에는 이를 ‘역량’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역량은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핵심역량 중심으로 국가 교육과정에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는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2012)은 핵심역량을 지적능력, 인성(태도), 기술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역량의 관점은 음악교육에서도 조명되는 가운데, 조성기(2011)는 음악역량을 음악기능, 음악활용능력, 음악이해능력, 음악적 창의성, 음악학습능력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영재교육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교육목표를 음악영재의 역량들을 기반으로 추출하여 요구조사 문항에 포함시켰다.

나. 음악영재교육과정의 내용

국내외의 음악영재교육에서 제공되는 교과목에는 음악영재교육을 통해 음악영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음악영재교육과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주요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음악영재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의 예술학교 또는 음악학교들과 국내의 예술계고등학교,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음악영재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교과목으로는 전공실기, 연주, 실내악, 오케스트라, 합창, 시창청음, 서양음악이론, 서양음악사, 음악 감상 등이 있었다(이경진, 최진영, 최나영, 2014). 국내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교과목은 개인레슨, 앙상블, 발표 형식의 연주, 시창청음, 감상·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경, 2010). 예술계 고등학교의 음악전공 교과목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술계 고등학교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전문교과로 규정된 시창청음, 음악이론, 음악사, 음악전공실기, 연주, 합창연주 등을 다루고 있었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의 예술계 고등학교 유사한 성격을 지닌 미국의 주지사 학교 중 사우스캐롤라이나 예술·인문학 영재학교, 앨라배마 예술학교, 애포매톡스 주지사 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음악사, 음악이론, 개별 전공실기, 청각 인지, 시창 등의 교과목이 우리나라의 예술계 고등학교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진, 최진영, 최나영, 2013). 줄리어드 예비학교(Pre-College Division, The Juilliard School, n.d.)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예술영재교육기관과 유사한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었다. 핵심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주전공 개인 레슨, 음악이론, 청음 교과목, 전공특화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오케스트라, 앙상블, 연주, 그리고 선택과정에서 제공되는 음악사 등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예후디 메뉴힌 학교(The Yehudi Menuhin School, n.d.)의 경우, 세부전공 영역의 주전공 레슨, 일반음악 영역의 청음과 이론, 음악사, 분석, 그리고 기타 교육기회로 제공되는 오케스트라, 실내악, 합창 등이 우리나라의 음악영재교육과정에서의 교과목과 공통적이다. 영국 왕립 음악원 예비학교(The Royal Academy of Music Junior Academy, n.d.)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주전공 실기, 실내악, 오케스트라, 합창, 뮤지션십 등의 교과목이 우리와 유사하다.

반면, 해외의 음악영재교육기관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교과목들도 필수나 선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부전공 실기, 창작 또는 작곡, 즉흥연주, 클래스 피아노 혹은 키보드 스킬 등이 이러한 교과목에 해당한다(이경진, 최진영, 최나영, 2014). 또한 선택 과정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다양화함으로써 학습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던 미국의 주지사 학교들의 경우에는 작곡, 클래스 피아노 교과목을 별도로 개설하고 있었다(이경진, 최진영, 최나영, 2013). 줄리어드 예비학교(Pre-College Division, The Juilliard School, n.d.)는 선택과정에서 부전공 개인레슨, 지휘법, 그룹 작곡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음악사 이외에도 대위법, 20세기 음악사, 후기조성이론 교과목 등을 개설함으로써 다양한 시대의 음악 어법에 흥미를 갖는 학습자들의 음악적 표현과 실험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고연주자의 심리적 기술 과목을 개설하여 음악가로서 직면하게 되는 리사이틀, 오디션, 콩쿠르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다스림으로써 최적화된 연주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학습자를 돕고 있었다.

예후디 메뉴힌 학교(The Yehudi Menuhin School, n.d.)는 작곡, 즉흥연주 교과목을 전체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즉흥연주 교과목에서는 고전양식이나 바로크양식의 즉흥연주를 배우게 되는데, 음악의 기반이 되는 화성적인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을 익힌 후 실제로 어떻게 즉흥연주를 해야 하는가를 학습하게 된다. 또한 세부전공 영역에서 제공되는 건반화성, 대위법, 연주자에게 좋은 자세 및 근육 교정 훈련을 제공하는 알렉산더 테크닉 과목이 우리나라와는 구별되는 지점이다. 영국 왕립 음악원 예비학교(The Royal Academy of Music Junior Academy, n.d.) 역시 필수는 아니지만 부전공 실기 레슨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으며, 키보드 스킬 교과목에서는 건반화성, 이조, 즉흥연주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의 음악영재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공실기, 시창청음, 연주, 실내악, 오케스트라, 합창, 서양음악이론, 서양음악사, 음악 감상 등의 교과목을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양상을 띠는 점에서 이들 교과목이 핵심적인 음악영재 교육과정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한수연 외(2006), 이미경(2010), 이미경, 강병직(2010), 정진원(2012)이 이미 제기한 바와 같이 국내 영재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이들 교과목이 음악영재성을 균형 있게 개발 시키기보다는 기능 위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내용에 치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 음악영재교육기관에서는 주전공 학습 이외에도 부전공 악기나 음악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교육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음악영재교육에서도 주전공 위주, 기능 개발 위주로 교과목이 구성되는 방식을 재고하고 창작, 즉흥연주, 부전공 실기, 클래스 피아노와 같이 기본적인 음악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이를 통해 주전공 학습을 극대화시키고 연주자로서 음악 및 예술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교육내용 및 교과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사회적 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기회, 시야를 넓혀 다양한 경험과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음악영재교육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내용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없으나 해외 교육에는 포함되어 있는 교육내용들을 포함하여 음악영재 교육내용들을 추출하여 요구조사 문항에 포함시켰다.

2. 음악영재교육과정의 방법과 평가

음악영재의 교육방법 및 교육평가와 관련하여 음악영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교육방법과 평가를 수행하는가는 교사의 결정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교수-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육방법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영재의 경우에는 인지적으로는 추상적인 기호체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 집중력, 간학문적 능력, 고도로 발달된 기억력, 흥미, 일찍부터 나타나는 언어적 관심과 발달, 독립적인 과제에 대한 선호, 다각적 관심, 독창적이 아이디어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는 정서적 강렬함, 완벽주의, 높은 에너지, 강한 애정과 집착, 미적 감수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이 교육방법과 교육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국내외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개인별 수업과 강의식 수업, 소집단 편성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골고루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음악영재교육의 특성상 전공 실기의 경우에는 개인 레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클래스 피아노나 실내악 앙상블 등의 경우에는 소규모로 집단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창청음이나 작곡, 키보드 스킵 등의 교과목이 수준별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수준을 달리하여 소집단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공연 관람을 통한 현장 체험도 강조하고 있다. 평가의 경우는 개인 또는 소집단의 연주에 대해 평가하거나 이론 중심 교과목의 경우는 지필 평가가 주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도 이와 같이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교육방법, 평가에 덧붙여 고민할 것은 음악영재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이다. 이미경(2010)은 음악영재 교육과정을 검토함

에 있어서 다음을 질문하도록 한다. 창의적 산출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지, 학습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중시하고 이들이 다양한 흥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지, 일방적인 강의 이외에 학습자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고 그것을 탐구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지, 학생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는지 질문을 던지도록 한다. 조형정 외(2011)는 풍부한 학습 경험 제공,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협동하는 태도,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예술영재로서 기본 소양을 기르며 예술적 감수성을 개발시키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수업, 즉 기존의 교육방법과 평가에 덧붙여 개인 연구나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자신의 학습과 학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반성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교육방법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음악영재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귀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론 기회의 제공도 중요함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리더이자 예술인으로서 음악영재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음악영재의 평가방식 이외에도 음악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동과 사회 참여를 평가하거나 연주·공연에 대해서 스스로 그리고 서로 비평하는 것도 평가의 방안으로서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재교육 및 음악영재교육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육방법 및 교육평가 뿐 아니라 이상적인 교육방법과 교육평가들을 요구조사 문항에 포함시켰다.

I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음악분야의 요구조사를 위해 영재교육원과 지역공동 영재학급에서 음악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음악영재 총 103명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	구분	설문 응답자	
		인원(퍼센트)	계
성별	남	36 (35.0%)	103 (100%)
	여	67 (65.0%)	
학교급	중학교	58 (56.3%)	103 (100%)
	고등학교	43 (41.7%)	
	기타	2 (1.9%)	
학교 유형	인문계 중/고등학교	44 (42.7%)	103 (100%)
	특수목적 중/고등학교(예술계 중/고등학교)	47 (45.6%)	
	기타	11 (10.7%)	
	무응답	1 (1.0%)	

2. 조사 도구

전공교과 교육과정 요구조사 설문 문항은 음악분야 전공교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국내외 음악교육전문기관의 전공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개발되었다. 설문지 초안은 음악분야 전문가들과 음악영재교육기관 운영 담당자들의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 문항을 결정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응답자의 특성과 음악영재교육과정 요구도로 구분된다. 응답자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은 응답자의 성별, 학교급 및 학년, 학교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요구도와 관련된 문항은 음악영재교육기관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도를 묻는 문항은 현재 수준과 필요수준을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해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응답된 데이터는 SPSS 23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음악영재 전공교과 교육과정 요구조사를 분석하기 위해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환경의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간에 차이가 있는지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교급(중학생/고등학생) 별로 학생들의 요구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셋째, 교육과정 각 요소별 요구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Borich(1980)의 요구도 공식을 적용하였다. Borich의 요구도 공식은 다음과 같다(조대연 외, 2010).

$$\text{요구도} = \frac{\left\{ \sum (\text{RL} - \text{PL}) \right\} \times \overline{\text{RL}}}{N}$$

RL : 필요 수준
 PL : 현재 수준
 $\overline{\text{RL}}$: 필요 수준 평균
 N : 전체 사례수

IV. 연구결과

1. 교육목표에 대한 요구분석

가. 전체 학생들의 요구분석

음악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목표와 관련된 음악영재가 갖춰야 하는 능력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음악영재 교육목표에 대한 요구분석(전체학생)

교육목표	필요 수준		현재 수준		차이			요구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	
1. 소리를 정확히 지각, 감지하고 그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	4.27	.81	3.41	.90	.85	1.12	7.69***	3.59
2. 실제로 듣지 않고도 내적으로 상상하거나 정확히 떠올릴 수 있는 능력	4.07	.87	3.48	.88	.59	1.13	5.31***	2.25
3. 앞서 들은 음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연상할 수 있는 능력	4.24	.77	3.50	.91	.75	1.06	7.13***	3.15
4. 악기의 기본 주법 및 테크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4.39	.76	3.45	.86	.94	1.06	8.98***	4.08
5. 정확하고 민첩하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	4.28	.85	3.31	.85	.97	1.18	8.38***	4.12
6. 음악개념 및 원리를 바탕으로 의도한 표현을 연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	4.38	.82	3.35	.83	1.02	1.15	8.94***	4.38
7. 음계, 화성과 같은 음악 개념, 구조, 형식 등 음악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원리를 이해	4.32	.84	3.41	.94	.92	1.11	8.35***	4.10
8. 소리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음악개념, 패턴, 구조, 형식 등을 이해	4.27	.84	3.47	.88	.79	1.10	7.25***	3.42
9. 음악의 사회, 경제, 정치적 영향을 파악하고, 미적 가치 및 다양한 양식 이해를 통한 예술적 판단 능력	4.06	.88	3.22	.92	.84	1.20	7.08***	3.55
10. 음악과 문화를 분리시키지 않고 문화로서의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4.14	.86	3.34	.90	.80	1.09	7.43***	3.49
11. 인문학적 지식을 통해 학문과 음악의 연결을 생각하고, 보다 깊이 있는 예술 세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	3.94	.98	3.16	1.03	.79	1.29	6.20***	3.34
12. 자신의 연주와 학습을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능력	4.51	.79	3.74	.93	.79	1.02	7.78***	3.48
13. 자신만의 표현을 사용하여 독창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	4.51	.79	3.52	.97	.99	1.08	9.31***	4.46
14. 즉흥연주를 통해 자발적으로 음악을 구성하거나 표현하는 능력	4.01	.94	3.11	1.06	.92	1.11	8.35***	3.85
15. 노래나 악곡 등의 작곡을 통해 음악적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3.93	.93	3.06	1.08	.89	1.20	7.50***	3.52
16. 자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4.53	.78	3.40	.99	1.17	1.12	10.54***	5.21
17. 학습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능력	4.25	.87	3.41	.95	.85	1.17	7.33***	3.68
18. 음악 주변의 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봉사·기여	4.18	.94	3.39	1.01	.79	1.17	6.83***	3.33
19. 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	4.66	.75	4.00	.83	.65	.93	7.03***	2.90

* $p < .05$; ** $p < .01$; *** $p < .001$

음악영재교육기관의 교육목표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평균이 1점 이상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음악개념 및 원리를 바탕으로 의도한 표현을 연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음악영재 교육목표에 대한 요구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 Borich의 요구도를 산출하였다. 음악영재 교육목표 중 ‘자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요구도가 5.21로 다른 교육목표에 비해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만의 표현을 사용하여 독창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4.46), ‘음악개념 및 원리를 바탕으로 의도한 표현을 연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4.38), ‘정확하고 민첩하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4.12), 그리고 ‘음계, 화성과 같은 음악개념, 패턴, 구조, 형식 등을 이해’(4.10) 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능력들을 음악영재 교육의 목표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신의 느낌 표현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수준과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요구도도 높았던 결과는 연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맥락 및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을 어떻게 음악가로서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음악영재 교육에서 소홀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 학교급에 따른 요구분석

학교급(중학교/고등학교)에 따라 음악영재 교육목표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학교급에 따른 음악영재 교육목표에 대한 요구분석

교육목표	중학생(N=58)					고등학생(N=43)						
	필요수준		현재수준		<i>t</i>	요구도	필요수준		현재수준		<i>t</i>	요구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소리를 정확히 지각, 감지하고 그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	4.14	.91	3.40	.88	4.88***	2.93	4.44	.63	3.42	.96	5.97***	4.55
2. 실제로 듣지 않고도 내적으로 상상하거나 정확히 떠올릴 수 있는 능력	4.12	.86	3.57	.86	3.63**	2.27	3.95	.87	3.40	.90	3.47**	2.21
3. 앞서 들은 음을 정확히 기억하고 연상할 수 있는 능력	4.19	.87	3.53	.94	4.41***	2.74	4.30	.64	3.44	.88	5.84***	3.70
4. 악기의 기본 주법 및 테크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4.28	.85	3.50	.86	5.49***	3.32	4.54	.59	3.40	.85	7.55***	5.17
5. 정확하고 민첩하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	4.19	.93	3.41	.84	5.18***	3.25	4.42	.70	3.21	.86	6.80***	5.34

교육목표	중학생(N=58)					고등학생(N=43)					요구도	
	필요수준		현재수준		t	요구도	필요수준		현재수준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6. 음악개념 및 원리를 바탕으로 의도한 표현을 연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	4.33	.87	3.40	.79	6.24***	4.03	4.44	.77	3.31	.90	6.08***	4.86
7. 음계 화성과 같은 음악 개념 구조 형식 등 음악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원리를 이해	4.28	.89	3.44	.85	6.44***	3.61	4.47	.67	3.40	.98	6.38***	4.78
8. 소리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음악개념, 패턴 구조, 형식 등 이해	4.22	.90	3.42	.87	5.43***	3.28	4.36	.69	3.54	.85	5.95***	3.63
9. 음악의 사회, 경제, 정치적 영향을 파악하고, 미적 가치 및 다양한 양식 이해를 통한 예술적 판단 능력	4.10	.89	3.36	.85	4.68***	3.04	4.02	.83	2.98	.94	6.56***	4.21
10. 음악과 문화를 분리시키지 않고 문화로서의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4.17	.90	3.41	.75	5.60***	3.17	4.12	.76	3.16	1.02	6.12***	3.92
11. 인문학적 지식을 통해 학문과 음악의 연결을 생각하고, 보다 깊이 있는 예술 세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	4.05	.95	3.35	.91	4.06***	2.86	3.86	.99	2.84	1.09	6.21***	3.95
12. 자신의 연주와 학습을 스스로 평가, 반성하는 능력	4.48	.90	3.63	.96	6.10***	3.94	4.54	.63	3.91	.89	4.57**	2.85
13. 자신만의 표현을 사용하여 독창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	4.43	.88	3.64	.91	5.63***	3.51	4.61	.66	3.35	1.04	7.69***	5.78
14. 즉흥연주를 통해 자발적으로 음악을 구성하거나 표현하는 능력	4.14	.93	3.35	1.03	6.00***	3.35	3.93	.88	2.79	1.06	6.52***	4.48
15. 노래나 악곡 등의 작곡을 통해 음악적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4.05	.93	3.30	1.07	4.61***	3.14	3.81	.91	2.77	1.04	6.56***	3.99
16. 자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4.43	.90	3.44	.98	6.97***	4.58	4.67	.57	3.37	1.00	7.75***	6.09

교육목표	중학생(N=58)					고등학생(N=43)						
	필요수준		현재수준		t	요구도	필요수준		현재수준		t	요구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7. 학습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능력	4.19	.95	3.50	.88	4.66***	2.89	4.40	.73	3.30	1.06	5.92***	4.80
18. 음악 주변의 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봉사·기여	4.17	.98	3.52	1.00	3.75***	2.73	4.23	.87	3.26	1.03	7.46***	4.13
19. 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	4.48	.90	3.84	.86	4.56***	2.78	4.86	.41	4.23	.75	5.44***	3.05

* $p < .05$, ** $p < .01$, *** $p < .001$.

학교급에 따라 교육목표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학생이 응답한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교육목표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필요수준 4.43, 현재수준은 3.44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음악영재 교육목표에 대한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자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요구도(4.5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악개념 및 원리를 바탕으로 의도한 표현을 연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요구도(4.03)가 높았다.

다음으로 고등학생이 응답한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차이가 1점 이상이었던 교육목표는 총 12개(목표 1, 4, 5, 6, 7, 9, 11, 13, 14, 15, 16, 17)로 나타나 중학생에 비해 대다수의 교육목표에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음악영재 교육목표에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중학생에 비해 많은 문항에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가장 요구도가 높았던 교육목표는 중학생과 동일하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6.09)이었으며 요구도는 중학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만의 표현을 사용하여 독창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5.78)과 ‘정확하고 민첩하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5.34)이 다른 교육목표에 비해 요구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교육목표 설정 시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이러한 요구의 차이에 따라 학교급별 목표를 고려하되 관객과 소통하는 능력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급의 목표로써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전문적인 음악인으로서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에 대해 위와 같이 응답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교육목표로서 설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2.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분석

가. 전체 학생들의 요구분석

음악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영재 교육내용과 관련된 교과목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음악영재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분석(전체학생)

교육내용	필요 수준		현재 수준		차이			요구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	
1. 전공실기	4.57	.76	4.17	.92	.41	1.05	3.93***	2.00
2. 전공연주	4.24	.97	3.88	.93	.36	1.24	2.95**	1.74
3. 실내악	4.36	.86	3.84	.93	.52	1.17	4.55***	2.29
4. 오케스트라	4.27	.92	3.59	1.20	.67	1.28	5.19***	2.73
5. 시창청음	4.44	.89	4.06	.92	.39	1.12	3.54**	1.90
6. 리듬수업	4.34	.81	3.72	1.06	.61	1.10	5.59***	2.70
7. 합창	3.79	1.16	3.10	1.25	.69	1.46	4.72***	2.65
8. 서양음악이론	4.36	.88	3.68	1.07	.68	1.36	5.02***	3.13
9. 서양음악사	4.30	.88	3.48	1.17	.82	1.34	6.14***	3.72
10. 음악 감상과 비평	4.25	.95	3.38	1.16	.87	1.35	6.46***	3.84
11. 음악과 문화	4.02	1.03	3.17	1.15	.84	1.50	5.58***	3.47
12. 국악의 이해	3.73	1.17	2.68	1.36	1.05	1.62	6.46***	3.99
13. 창작	3.93	1.11	2.99	1.28	.94	1.56	6.04***	3.98
14. 클래스 피아노	4.09	.98	2.92	1.32	1.16	1.48	7.74***	4.77
15. 부전공 실기	3.98	1.07	2.78	1.34	1.20	1.61	7.46***	4.70
16. 예술통합프로그램	3.92	1.16	3.08	1.28	.84	1.37	6.18***	3.33
17. 음악 현장 체험	4.39	3.39	3.37	1.30	1.00	1.59	6.33***	4.21
18. 지역사회 봉사	4.09	1.09	3.06	1.25	1.03	1.60	6.44***	4.13

* $p < .05$, ** $p < .01$, *** $p < .001$.

음악영재 교육내용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평균이 1점 이상 차이가 나타난 것은 ‘국악의 이해’, ‘클래스 피아노’, ‘부전공 실기’, ‘음악현장체험’과 ‘지역사회봉사’로 나타났다. ‘클래스 피아노’와 ‘부전공 실기’의 필요수준은 각각 4.09와 3.98로 나타났으며 현재수준은 각각 2.92와 2.78로 나타나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가 가장 컸다.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 Borich의 요구도를 산출하였다. 음악영재 교육내용 중 ‘클래스 피아노’(4.77)와 ‘부전공 실기’(4.70)의 요구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음악현장체험’(4.21)과 ‘지역사회봉사’(4.13)의 요구도가 높았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음악영재를 위한 교과목을 선정할 때에는 클래스 피아노와 부전공

실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 실기나 전공 연주, 시창청음 교과목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이 모두 높아 요구도가 낮아졌다는 점이다. 즉, 음악영재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과 교육기관 모두 이들 교과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이러한 교육내용은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학교급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분석

음악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영재 교육내용과 관련된 교과목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학교급에 따른 음악영재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분석

교육내용	중학생(N=58)					요 구 도	고등학생(N=43)					요구 도
	필요수준		현재수준		t		필요수준		현재수준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전공실기	4.41	.88	4.14	.91	1.93	1.22	4.81	.45	4.16	.95	4.63***	3.13
2. 전공연주	4.17	.99	3.85	.93	2.05*	1.37	4.42	.85	3.91	.95	2.89**	2.26
3. 실내악	4.31	.88	3.76	.92	3.50**	2.38	4.42	.85	3.93	.94	2.86**	2.16
4. 오케스트라	4.27	.90	3.84	1.01	2.64*	1.91	4.27	.98	3.31	1.37	4.66***	3.85
5. 시창청음	4.26	.95	3.90	.93	2.43*	1.54	4.74	.54	4.26	.89	3.81***	2.43
6. 리듬수업	4.24	.84	3.72	.91	3.76***	2.19	4.52	.74	3.73	1.23	4.51***	3.45
7. 합창	3.91	1.08	3.23	1.18	3.44**	2.65	3.69	1.20	2.98	1.33	3.12**	2.64
8. 서양음악이론	4.30	.84	3.70	1.00	3.98***	2.56	4.51	.78	3.63	1.18	3.87***	3.96
9. 서양음악사	4.20	.90	3.55	1.03	4.07***	2.70	4.52	.67	3.38	1.32	5.70***	5.17
10. 음악 감상과 비평	4.23	.89	3.50	.99	4.82***	3.10	4.33	.90	3.21	1.34	5.31***	4.85
11. 음악과 문화	4.18	.90	3.39	1.09	4.46***	3.28	3.88	1.11	2.88	1.12	4.05***	3.70
12. 국악의 이해	4.00	1.03	2.96	1.33	4.73***	4.14	3.34	1.26	2.23	1.28	4.58***	3.75
13. 창작	4.16	1.01	3.23	1.13	4.75***	3.86	3.74	1.11	2.64	1.38	4.65***	4.09
14. 클래스 피아노	4.11	.87	3.07	1.13	6.27***	4.25	4.07	1.13	2.69	1.51	5.06***	5.46
15. 부전공 실기	4.04	1.04	3.05	1.23	4.80***	3.96	3.88	1.13	2.43	1.43	5.49***	5.64
16. 예술통합프로그램	4.18	.98	3.28	1.13	5.02***	3.74	3.60	1.33	2.81	1.44	3.62**	2.82
17. 음악 현장 체험	4.33	.97	3.40	1.25	4.54***	4.03	4.45	.99	3.45	1.33	3.99***	4.45
18. 지역사회 봉사	4.16	.91	3.14	1.21	5.05***	4.24	4.00	1.31	3.00	1.29	3.82***	4.00

* p<.05, ** p<.01, *** p<.001.

먼저 중학생이 응답한 교육내용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차이가 1점 이상이었던 교육내용은 ‘국악의 이해’, ‘클래스 피아노’와 ‘지역사회봉사’로 나타났다. ‘전공실기’의 경우는 필요수준이 4.41로 높았으나 현재수준 역시 4.14로 높게 나타나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클래

스 피아노'(4.25)와 '지역사회 봉사'(4.24)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악의 이해'(4.14), '음악현장체험'(4.0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등학생이 응답한 교육내용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차이가 1점 이상이었던 교육내용은 '서양음악사',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과 문화', '국악의 이해', '창작', '클래스 피아노', '부전공 실기', '음악현장체험'과 '지역사회 봉사'로 나타났다. '클래스피아노'의 경우 필요수준 4.07, 현재수준 2.69로 평균 차이가 가장 컸다. 중학생의 응답에서는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간의 평균 차이가 없었던 '전공실기'의 경우 고등학생들의 '전공실기'에 대한 필요수준은 4.8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현재수준은 4.16로 나타나 평균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부전공 실기'(5.64)와 '클래스 피아노'(5.46)의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중학생과 다르게 '부전공 실기'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양음악사'(5.17), '음악감상과 비평'(4.85)과 '음악 현장 체험'(4.45)의 요구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교과목을 개설 시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이러한 요구의 차이에 따라 학교급별 교육내용을 고려하되 클래스 피아노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급에서, 고등학교급에서는 부전공 실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의 결과에서와 같이 중학교급에서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육내용을 포함시켜 음악영재들이 청소년기부터 사회에 기여하는 태도와 습관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고등학교급에서의 결과 중 전공실기에 대한 현재수준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가 유의했던 점은 전공실기 수업의 교육내용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제고해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3.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분석

가. 전체 학생들의 요구분석

음악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영재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음악영재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분석(전체학생)

교육방법	필요 수준		현재 수준		차이			요구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	
1. 1:1 전공 실기 수업	4.53	.83	4.16	.92	.38	1.09	3.51**	1.89
2. 그룹 수업	3.86	1.00	3.66	.98	.20	1.15	1.80	0.92
3. 수준별 소집단 수업	4.12	.89	3.62	1.01	.50	1.18	4.26***	2.21
4. 강의식 수업	4.18	.81	3.69	.95	.49	1.03	4.79***	1.95
5. 프로젝트 및 개인연구	4.01	.94	3.50	1.06	.51	1.27	4.05***	2.40
6. 토론식 수업	3.67	1.08	3.04	1.17	.64	1.37	4.66***	2.49
7. 현장 수업	4.37	.83	3.35	1.24	1.03	1.45	7.13***	4.36

교육방법	필요 수준		현재 수준		차이			요구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	
8. 전문성 심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내용 제공하는 수업	4.13	.90	3.29	1.06	.83	1.26	6.68***	3.56
9. 학습자의 자율적 선택과 흥미를 추구하는 수업	4.28	.86	3.29	1.19	.98	1.41	7.00***	4.43
10. 학생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개방성과 융통성	4.20	.90	3.16	1.18	1.04	1.41	7.42***	4.34

* $p < .05$, ** $p < .01$, *** $p < .001$.

음악영재 교육방법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한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평균이 1점 이상 차이가 나타난 것은 ‘현장 수업’(필요수준 4.37, 현재수준 3.35)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개방성과 융통성’(필요수준 4.20, 현재수준 3.16)이었다. 현재수준과 필요수준의 평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교육방법은 ‘그룹 수업’으로 필요수준 3.86, 현재수준 3.66로 평균 간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 Borich의 요구도를 산출하였다. 음악영재 교육방법 중 ‘학습자의 자율적 선택과 흥미를 추구하는 수업’의 요구도가 4.43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장 수업’(4.36)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개방성과 융통성’(4.34)의 요구도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평균 간에 차이가 없었던 ‘그룹 수업’의 요구도는 .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음악영재를 가르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자의 선택과 흥미, 학습 요구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수준과 필요수준 간의 차이가 유의하고 요구도도 높았던 결과는 현행 음악영재 교육방법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행 교육방법의 상당부분이 학습자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음악영재가 스스로 음악의 길을 정립하며 나가도록 도와주기 보다는 일방적인 교수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음악영재 스스로 학습에 대하여 선택하고 자신의 요구를 드러낼 수 있고 이것이 반영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학교급에 따른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분석

음악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영재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학교급에 따른 음악영재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분석

교육방법	중학생(N=58)					고등학생(N=43)						
	필요수준		현재수준		t	요구도	필요수준		현재수준		t	요구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1:1 전공 실기 수업	4.41	.90	4.09	.90	2.12*	1.45	4.74	.58	4.21	.94	4.10***	2.54
2. 그룹 수업	4.00	.88	3.48	1.05	3.65**	2.07	3.72	1.12	3.86	.83	-.86	-.52
3. 수준별 소집단수업	4.12	.80	3.47	.94	5.38***	2.70	4.16	.97	3.79	1.08	1.79	1.55
4. 강의식 수업	4.19	.76	3.59	.96	4.64***	2.53	4.19	.88	3.91	.87	1.74	1.17
5. 프로젝트 및 개인연구	4.12	.80	3.38	1.06	5.13***	3.05	3.98	.98	3.60	1.04	2.08*	1.51
6. 토론식 수업	3.91	.96	3.05	1.09	5.36***	3.42	3.41	1.17	3.00	1.27	1.81	1.38
7. 현장 수업	4.35	.79	3.29	1.12	6.08***	4.57	4.38	.91	3.44	1.34	3.82***	4.07
8. 전문성 심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내용 제공하는 수업	4.16	.85	3.21	1.06	6.39***	3.94	4.12	.92	3.38	1.06	3.66**	3.04
9. 학습자의 자율적 선택과 흥미를 추구하는 수업	4.29	.82	3.28	1.17	5.55***	4.37	4.31	.87	3.26	1.23	5.06***	4.51
10. 학생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개방성과 융통성	4.28	.88	3.21	1.18	5.62***	4.57	4.12	.89	3.14	1.16	4.88***	4.02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중학생이 응답한 교육방법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차이가 1점 이상이었던 교육방법은 ‘현장수업’, ‘학습자의 자율적 선택과 흥미를 추구하는 수업’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개방성과 융통성’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현장 수업’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개방성과 융통성’의 요구도가 동일하게 4.5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학습자의 자율적 선택과 흥미를 추구하는 수업’의 요구도(4.37)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등학생이 응답한 교육방법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네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차이가 1점 이상이었던 교육방법은 ‘학습자의 자율적 선택과 흥미를 추구하는 수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평균 차이가 컸던 문항은 ‘현장수업’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개방성과 융통성’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응답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과는 다르게 고등학생의 경우 ‘그룹 수업’, ‘수준별 소집단 수업’과 ‘강의식 수업’, ‘토론식 수업’에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학습자의 자율적 선택과 흥미를 추구하는 수업’의 요구도(4.51)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현장수

업'(4.07)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개방성과 융통성'(4.02)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룹 수업'의 경우는 현재수준이 필요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요구도가 -.5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급별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자율적인 선택과 흥미를 추구하고 수업에서 학습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수업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완성을 추구하는 수업 못지않게 그러한 음악이 실제로 펼쳐지는 다양한 현장도 함께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예비 음악가로서 미래를 꿈꾸며 학습 동기를 높이고 음악과 그 맥락을 함께 이해하도록 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교육평가에 대한 요구분석

가. 전체 학생들의 요구분석

음악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영재 교육평가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음악영재 교육평가에 대한 요구분석(전체학생)

교육평가	필요 수준		현재 수준		차이			요구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	
1. 지역 사회, 정부 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작품 발표나 공연에 대한 평가	3.91	.97	3.19	1.07	.73	1.42	5.15***	3.04
2. 그룹별로 협동해서 공동의 작품이나 연주에 대한 평가	4.01	.99	3.29	1.06	.72	1.40	5.20***	3.07
3. 개인작품 발표나 연출에 대한 평가	4.02	1.02	3.45	1.02	.57	1.24	4.64***	2.43
4. 스스로 '자기 평가'	4.15	1.06	3.50	1.03	.65	1.31	4.99***	2.90
5. 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상호 평가	4.05	1.00	3.31	1.09	.74	1.25	5.98***	3.09
6. 이론 중심의 지필 평가	3.87	1.04	3.46	1.06	.42	1.35	3.15**	1.82

* p<.05, ** p<.01, *** p<.001.

음악영재 교육평가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평균이 1점 이상 차이가 나타난 평가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교육과정 구성요소에 비해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평가에 대한 요구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 Borich의 요구도를 산출하였다. 음악영재 교육평가 중 '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상호평가'와 '그룹별로 협동해서 공동의 작품이나 연주에 대한 평가'의 요구도가 각각 3.09과 3.07로 다른 교육평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정부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작품발표나 공연에 대한 평가'의

요구도가 3.04로 높았다. ‘이론 중심의 지필 평가’의 요구도는 1.8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음악영재교육에서의 평가는 이론을 중심으로 한 평가보다는 주전공 분야의 실기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대방의 연주를 서로 평가하거나 협업한 작품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점은 교수자가 학습자를 평가하는 전통적인 방식 이외에 평가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나. 학교급에 따른 요구분석

음악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영재 교육평가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학교급에 따른 음악영재 교육평가에 대한 요구분석

교육평가	중학생(N=58)					고등학생(N=43)						
	필요수준		현재수준		t	요 구 도	필요수준		현재수준		t	요 구 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지역 사회, 정부 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작품 발표나 공연에 대한 평가	4.05	.89	3.22	1.03	4.80***	3.35	3.81	.97	3.12	1.11	3.15**	2.63
2. 그룹별로 협동 공동의 작품이나 연주에 대한 평가	4.03	.92	3.17	1.05	5.09***	3.48	4.02	1.06	3.40	1.07	2.81**	2.53
3. 개인작품 발표나 연출에 대한 평가	4.02	.98	3.40	1.06	4.00***	2.49	4.10	1.06	3.52	.94	3.01**	2.34
4. 스스로 ‘자기 평가	4.11	1.05	3.36	.97	4.23***	3.02	4.33	.92	3.70	1.01	3.39**	2.72
5. 학생(친구)들이 서로에 대한 상호 평가	4.03	1.01	3.26	1.04	4.70***	3.13	4.07	1.01	3.33	1.17	4.01***	3.03
6 이론 중심 지필 평가	4.00	.99	3.38	1.04	3.65**	2.48	3.81	.98	3.56	1.05	1.34	0.98

* p<.05, ** p<.01, *** p<.001.

위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응답한 교육평가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평균이 1점 이상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다. 중학생의 교육평가에 대한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그룹 별로 협동 공동의 작품이나 연주에 대한 평가’의 요구도(3.48)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 사회, 정부 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작품 발표나 공연에 대한 평가’의 요구도(3.35)가 높았다.

다음으로 고등학생이 응답한 교육평가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는 한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다르게 고등학생의 응답에서는 ‘이론 중심의 지필평가’의 경우 필요수준이 3.81, 현재 수준이 3.56으

로 나타나 평균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교육평가에 대한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중학생에 비해 교육평가에 대한 요구도가 낮았으며 중학생과 다르게 ‘학생(친구)들이 서로에 대한 상호평가’의 요구도(3.0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위와 같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급별 교육평가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상대방을 평가하는 상호평가 방법과 공동의 작품을 평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평가에 대한 요구도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하여 평가를 덜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이들의 음악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분석

가. 전체 학생들의 요구분석

음악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영재교육기관의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음악영재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가장 차이가 크게 나타난 교육환경은 ‘음악 실기실/실습실(연습실)’이었다. ‘음악 실기실/실습실’의 필요수준의 평균은 4.45로 가장 높았으나 현재수준의 평균은 3.17로 다른 교육환경에 비해 현재 수준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0> 음악영재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분석(전체학생)

교육환경	필요수준		현재수준		차이			요구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i>t</i>	
1. 음악실기실/실습실(연습실)	4.45	.77	3.17	.93	1.29	1.31	9.90***	5.55
2. 시청각 자료실	3.79	.94	3.25	.82	.55	1.22	4.52***	2.17
3. 공연장	4.19	.95	3.44	1.08	.76	1.45	5.24***	3.11
4. 강의 및 대규모 수업을 위한 교실	4.09	.86	3.50	.96	.59	1.35	4.42***	2.48
5. 다양한 학습 자료나 재료 등이 비치된 교실	3.96	.89	3.29	.91	.68	1.31	5.19***	2.84

* $p < .05$, ** $p < .01$, *** $p < .001$.

음악영재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 Borich의 요구도를 산출하였다. 음악영재 교육환경 중 ‘음악 실기실/실습실’의 요구도가 5.55로 다른 교육환경에 비해 월등하게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연장’이 3.11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른 교육환경에 비해 요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시청각 자료실’(2.17)이었다. 따라서 무엇보다 자신의 주전공 분야를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과 무대화할 수 있는 공연장을 양적·질적으로 제고하고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학교급에 따른 학생들의 요구분석

학교급(중학교/고등학교)에 따라 음악영재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학교급에 따른 음악영재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분석

교육환경	중학생(N=58)						고등학생(N=43)					
	필요수준		현재수준		t	요구도	필요수준		현재수준		t	요구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음악 실기실/ 실습실(연습실)	4.33	.85	3.19	.88	6.76***	4.85	4.60	.63	3.16	1.02	6.88***	6.56
2. 시청각 자료실	3.93	.96	3.09	.83	4.87***	3.31	3.61	.89	3.43	.74	1.28	0.70
3. 공연장	4.19	1.03	3.39	1.01	4.02***	3.38	4.15	.85	3.50	1.15	3.12**	2.73
4. 강의 및 대규모 수업을 위한 교실	4.23	.89	3.21	.94	5.61***	4.30	3.91	.79	3.86	.89	.27	0.19
5. 다양한 학습 자료나 재료 등이 비치된 교실	4.18	.85	3.16	.94	5.51***	4.25	3.71	.87	3.43	.86	1.82	1.08

* $p<.05$, ** $p<.01$, *** $p<.001$.

학교급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학생이 응답한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가장 차이가 크게 나타난 교육환경은 ‘음악 실기실/실습실(연습실)’로 ‘음악 실기실/실습실’의 필요수준은 4.33, 현재수준은 3.1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의 차이가 컸던 교육환경은 ‘강의 및 대규모 수업을 위한 교실’(필요수준: 4.23, 현재수준: 3.21)과 ‘다양한 학습 자료나 재료 등이 비치된 교실’(필요수준: 4.18, 현재수준: 3.16)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음악실기실/실습실’의 요구도가 4.8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의 및 대규모 수업을 위한 교실’(4.30)과 ‘다양한 학습자료나 재료 등이 비치된 교실’(4.25) 순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고등학생이 응답한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음악 실기실/실습실(연습실)’과 ‘공연장’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의 차이가 가장 컸던 교육환경은 ‘음악 실기실/실습실’로 필요수준은 4.60, 현재수준은 3.16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응답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의 차이가 컸던 교육환경은 ‘공연장’으로 필요수준은 4.15, 현재수준은 3.50으로 나타났다. 다른 교육환경의 경우는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등학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중학생과 동일하게 ‘음악실기실/실습실’의 요구도

(6.56)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연장’의 요구도(2.73)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다른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도는 중학생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교육환경을 마련할 경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급 공통적으로 가능한 많은 수의 연습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급에서 공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문 음악인을 위한 준비 단계로써 그리고 진학을 위해서 실제 무대에서 연주할 기회를 점차 많이 가져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급별 요구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해당 음악영재에게 필요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악영재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음악영재교육의 학습자인 예술영재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에는 교과와 사회 뿐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를 조사해야 한다. 학생의 요구조사 결과만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전공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음악영재들의 요구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영재의 교육목표에 대한 요구에 의하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교육목표에 대한 요구도 중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만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 ‘음악개념 및 원리를 바탕으로 의도한 표현을 연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정확하고 민첩하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 순서였다. 음악영재들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수준과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음악영재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특히 교과목과 교육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자신만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연주하고, 음악개념 및 원리를 바탕으로 의도한 표현을 연주로 구현하는 능력은 독창적인 표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음악영재성 또는 음악재능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도 창의성에 가깝게 분류되고 있다(Haroutonian, 2002; 정진원, 2012). 정확하고 민첩하게 연주할 수 있는 기능 측면의 능력 못지않게 이와 같은 능력 계발에 대해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는 점은, 음악영재교육이 기능 위주의 전문가 양성에 치중하고 있다는 현실(한수연 외, 2006; 이미경, 강병직, 2010; 정진원, 2012)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영재 전공교과의 교육목표를 설정할 때 학습자들의 요구와 같이 창의성의 측면도 함께 계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자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나, 그 다음으로 중학생은 ‘음악개념 및 원리를 바탕으로 의도한 표현을 연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요구조사 결과에 진술한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항목에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학생보다 ‘자

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요구가 월등히 높았으며 '자신만의 표현을 사용하여 독창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과 '정확하고 민첩하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요구도도 상당히 높았다. 이는 고등학생들은 교육목표에 대한 요구가 더 다양할 뿐 아니라 연주와 직접 관련된 능력들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자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라는 점은 연주라는 것이 음악가와 작품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을 공유하는 순간, 그리고 그 음악을 함께 느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영재교육에서 이러한 목표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현재수준과 필요수준 간의 차이가 큰 결과로 미루어, 이제까지의 음악영재교육이 작품을 연주해내는 것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둔 나머지 실제 연주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맥락과 여기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외면한 것은 아닌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교육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학교급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내용 즉 교과목의 요구도와 관련하여, 요구도가 낮은 교육내용을 줄여야 한다면 보다는 요구도가 높은 교육내용을 교육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음악영재는 건반악기 비전공생을 위한 피아노 기초 과목인 '클래스 피아노'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전공 악기 연주의 기초기능을 습득하는 '부전공 실기', 공연장 방문, 예술전문가 초청 수업 등 체험학습활동 과목인 '음악 현장체험'이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전공실기나 전공연주, 시창청음 등 영재교육원에서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교과목들은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나 그 결과로 요구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교과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요구조사에서 높은 요구도를 보인 교육내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클래스 피아노와 부전공 실기, 음악 현장체험이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는 점은 음악영재 교육내용을 개발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양한 교육내용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음악영재의 전문성 심화를 강조한 점에서도(이미경, 2010; 조형정 외, 2011), 주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과목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전체적인 음악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과목들을 제공함으로써 음악영재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요구조사 결과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바깥직한 음악영재교육에 대한 제안을 주관식으로 기재하도록 한 문항에서 많은 음악영재들이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거나 예술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등 음악과 관련된 현장체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므로 음악영재들에게 더 많은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내용 역시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중학생 음악영재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에 따라 교육내용의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평균 간에 차이를 분석한 결과, '클래스 피아노'와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과는 다르게 '전공실기'의 필요수준과 현재 수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전공 실기'와 '클래스 피아노'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공실기 뿐 아니라 부전공 실

기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으므로 이를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현재 음악영재교육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클래스 피아노’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었다. 물론 부전공 실기나 클래스 피아노 교과목은 이들이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이수할 기회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해외의 음악영재교육기관에서는 이미 이러한 교육내용을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고(Pre-College Division, The Juilliard School, n.d.; The Yehudi Menuhin School, n.d.; The Royal Academy of Music Junior Academy, n.d.), 우리나라에서 음악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역시 가장 강력한 요구도를 보인다는 점은, 음악영재들이 자신의 주전공 악기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건반악기나 부전공 악기를 통해 음악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기를 기대하며 또 그것을 토대로 전공 악기에 대한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음악영재 교육방법 중 ‘학습자의 자율적 선택과 흥미를 추구하는 수업’과 ‘현장 수업’의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교육방법은 필요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수준은 높지 않아 요구도가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개방성’, ‘전문성 심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내용을 제공하는 수업’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방법에서 음악영재들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요구하고 있었다. 학습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최근의 연구에서 학습자의 자율적인 선택과 흥미를 추구하도록 하는 기회 제공을 음악영재 교육과정의 주요사항으로써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미경, 2010)을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방법에 도입함으로써 음악영재는 자신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자신의 음악적 삶을 설계해 나가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영재가 교육 주기에 따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구성해 나가도록 돕는 교육과정(한수연, 2006)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은, 교육목표로서 연주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능력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결과와도 연결시켜 볼 때에 우리나라의 음악영재교육 방식이 음악이 실제 이루어지는 현장과 맥락을 비교적 소홀히 해왔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요구는 음악영재교육과정의 교육방법을 결정할 때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내용을 원하고 있으므로 음악영재교육과정의 교육방법 뿐 아니라 교과목 편제에서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평가와 관련하여 요구조사 결과 ‘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상호평가’와 ‘그룹별로 협동해서 공동의 작품이나 연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영재들의 인지적·정의적 특성(Winner & Martino, 1993; Van Tassel-Baska & Stambaugh, 2007)과 관련된 것으로, 음악영재들이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작품이나 연주를 보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반성하려는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그룹 별로 협동 공동의 작품이나 연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상호평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음악영재의 교육평가에서는 개인 작품에 대한 교사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음악영재들이 서로의

작품을 보고 상호 평가하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영재가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음악영재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음악영재들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음악영재들에게 교육환경에 대해 요구조사를 한 결과, ‘실기실/실습실(연습실)’에 대한 요구도가 다른 교육환경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실기실/실습실(연습실)’과 함께 ‘공연장’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는 현재 음악영재교육기관은 주말이나 방과 후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영재들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음악영재교육기관에서는 음악영재들이 충분히 실기 연습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말이나 방과 후가 아니라 전일제로 운영되는 예술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시급하며 예술영재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예술영재들이 언제든지 충분히 실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자 (2000). **학교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사.
- 김성혜 (2012). 음악영재교육과정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음악이론연구**, 19, 140-178.
- 김성혜, 이경진 (2015). 숙의에 의한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33(2), 129-155.
- 김춘미 외 (2006). **예술영재교육 발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원영실 (2013). 예술영재성의 의미와 특성: 음악, 전통예술, 발레 분과를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3(6), 919-945.
- 이경진, 최진영, 최나영 (2013). **예술영재학교의 전공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조사**.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경진, 최진영, 최나영 (2014).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교과 목표 및 교과목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4(5), 807-827.
- 이근호, 광영순, 이승미, 최정순 (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미경 (2010). 교육청 중심 음악영재 교육과정의 현황. **음악교육연구**, 39, 157-182.
- 이미경, 강병직 (2010).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성호 (2004).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 서울: 학지사.
- 정진원 (2008). 음악재능의 이해와 발견. **예술교육연구**, 6(2), 73-83.
- 정진원 (2011). 음악영재교육과정 모형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반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40(1), 1-31.
- 정진원 (2012). 음악영재성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모형연구. **한국초등교육**, 23(1), 269-291.

- 조대연, 박용호, 김벼리, 김희영 (2010). 학교장의 직무역량에 대한 요구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7(4), 293-315.
- 조성기 (2011). 미래사회를 위한 초·중등학생의 음악 역량 연구. **음악교육공학**, 12, 1-15.
- 조형정 외 (2011). **예술영재 전문교육기관 및 교과과정 설립연구**.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한수연 외 (2006). **예술영재교육과정 연구**.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Berrie, P. J. (1976). *Needs assessment*. Ankeny, Iowa: Area II Education Agency.
- Borich, G. (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3), 39-42.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 Haroutounian, J. (2002). *Kindling the spark: recognizing and developing musical tal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yler, R. W. (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nTassel-Baska, J., & Stambaugh, T. (2007). **최신영재교육과정론**. [강현석 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본출간년도: 2006).
- Winner, E., & Martino, G. (1993). Giftedness in the Visual Arts and Music. In K. Heller, F. Monks, &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Oxford; New York: Pergamon Press.
- Royal Academy of Music, Junior Academy (n.d.). Retrieved from 2014. 5. 13, www.ram.ac.uk/jram
- Julliard Pre-College (n.d.). Retrieved from 2014. 5. 13, www.juilliard.edu/youth-adult-programs/juilliard-pre-college
- Yehudi Menuhin School. (n.d.). Academic. Retrieved from 2014. 4. 20, <http://www.yehudimenuhinschool.co.uk/school/academic>

= Abstract =

A Needs Assessment for Developing the Gifted Curriculum in Music

Kyungjin Lee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Jinyoung Choi

Ewha Womans University

Na-Young Choi

Ewha Womans University

Jihye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musically gifted students' needs in order to develop the gifted curriculum in music. The survey was carried out with 103 musically gifted students who are being educated in institutes for the gifted. The survey asked the needs about components of the gifted curriculum in music: the educational objectives, contents, teaching strategies, evaluation as well as educational environment influencing on the curriculum. As for the objectives, the result showed the highest needs was th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audience by expressing one's feeling.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a large number item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necessary level and the current level. As for the contents, the highest needs were the class piano, second instrument, and the experience of the musical field. High school students needed the second instrument more than middle school students did. As for the teaching strategies, the highest needs were the autonomous choice by learners, the instruction pursuing learners' interests, and the field work. As for the evaluation, the highest needs were the peer evaluation and the evaluation on the collaborative performance or team work. As for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gifted in music strongly needed spaces to practice instruments. Additionally, high school students needed a space to perform like a concert hall. Thus the gifted curriculum in music must be thoroughly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 above.

Key Words: Gifted curriculum in music, curriculum development, needs assesment

1차 원고접수: 2015년 9월 15일
수정원고접수: 2015년 11월 22일
최종게재결정: 2015년 11월 22일